

“수학에 대한 지적 갈증, 우리가 해결해 드립니다”

최근 서점가에는 수학 관련 도서들이 눈에 많이 띈다. 수학의 역사에서 생활 속의 수학까지 그 분야도 다양하다. 그리고 그 인기도 상당히 높다. 수학이 현시대에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30여 년 동안 수학, 공업 전문서적을 출판해 온 경문사는 수학이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 준다고. 수학이 가진 아름다움을 찾아 여행하고 있는 그들을 만났다.

홍대에서 신촌으로 난 길을 가다보면 조그만 언덕 위에 파란 4층 건물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경문사(京文社)이다. 1층은 수학, 공업 서적들이 가득한 전시장이고, 3층이 편집부 직원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이다. 수학, 공업 서적이 가득한 1층 전시장을 지나, 3층 편집부로 올라갔다. 오래된 건물임에도 깔끔한 인상을 주었는데, 수학전문출판사의 느낌 때문인지 놓여 있는 물건들이 마치 몇 도 각도로 자로 잰듯, 위치를 고려해 놓여있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건 아니었다.

수학전문출판사로 우뚝 선 경문사

경문사(대표 박문규, www.kyungmoon.co.kr)는 1979년 공업서적 전문출판사로 처음 문을 열었다. 그 당시 전문서적출판은 지금보다도 더 열악해 시작하려는 사람이 적었고, 특히 공업전공서적은 난이도가 있어 쉽게 업무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공업서적출판을 하는 출판사가 극히 적었는데, 이곳에 경문사가 자신있게 첫발을 내딛었다. 물론 경문사도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남

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업서적들을 출간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출판사의 인지도도 높아졌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책을 출간할 때마다 어떤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는 것이었다. 그건 다름아닌 ‘수학’ 때문이었다. 공업이 다분히 수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제대로 모르고 공업전공서적을 출간하는 건 웬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박 사장은 수학 관련서적을 출판하기로 결정한다. 1980년대부터 경문사는 본격적으로 수학관련 서적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학서적 출판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수학서적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식이 들어가는데, 당시 국내 기술로는 모든 수학기호를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조판기술이 앞서 있던 동국전산에 도움을 요청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당시 동국전산은 경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고가의 장비와 기술을 들여오기도 했다. 그런 인쇄조판업체의 도움으로 불가능하기만 했던 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기뻐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책이었지만, 잘 팔리지는 않았다. 번거로운 작업들로 인해 생산비용이 2배이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 1층 전문서적 전시장을 소개하고 있는 박문규 사장
 2. 홍대에서 걸으면 5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문사 사옥
 3. 편집부는 수학전문서적을 출판하는 경문사와 수학교양서적을 출판하는 자회사10101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두터운 독자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사장은 그당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망설임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지난 28년 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아 현재 경문사는 국내 수학 전공서적, 교양서적 분야에서 6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수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경문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지금도 경문사하면 수학, 공업 서적으로는 높은 명성을 자랑한다. 현재 경문사는 다양한 외국 수학서적들을 국내에 번역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좋은 책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전문 출판사로서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수학언어 교정, 번역 어려워

‘수학서적을 해보니 출판의 어려움을 알겠다’ 경문사는 수학분야의 필요성을 느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길이 순탄치않은 않았다.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제판과 조판에서의 수

학기호들만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들여 다양한 수학기호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획, 번역, 출판 못지 않게 교정 단계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출판사 교정팀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정, 교열을 보지만 수식 하나 하나까지는 무리였다. 수학서적들이 대부분 전문서적이다보니, 책을 읽고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전문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분야의 전공인이거나 현직 교수들을 교정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

한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 모든 출판과정을 거쳐 책이 나왔는데, 책에 문제가 생겨서 전량을 회수하게 되었다. 몇 개의 잘못된 수식 표현 때문이었는데, 이만큼이나 수학, 공업 전공서적은 한 공식 공식이 무척 중요하다. 이때 책을 전량 수거하지 않고 수정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찌면 지금의 경문사는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시 책을 출간한 수학자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경문사도 잘못이 있는 책을 서점에 배포할 수는 없었다. 잘못된 책을 가지고 배우게 되면 엄청난 길을 헤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 경영철학이 무엇인가?

◎ 저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분명 조직의 일원으로써 이익을 남기고, 보수를 받기 위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각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위기가 닥치면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문사는 사람과의 관계, 즉 유대감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 간단한 예로 우리는 자주는 못하지만, 직장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일 년에 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배식을 해 주는 일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모두들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는 그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를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서로의 특징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밖에도 야유회라든지, 단합대회, 회식 등의 행사를 자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만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에게 배식을 하다보면 은연중에 지금까지 너무 위만 바라보는 생활을 하지 않으나 반성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한번만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면, 지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풍족하고, 편안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직원들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IMF때 경문사도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이런 어려움을 알고 경비 줄이기에 캠페인을 직원들 스스로가 펼쳐 경비를 무려 1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인간

적인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 줍니다. 저로서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마음이 통했다고 할까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생활 속에 수학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수학서적을 출판하게 된 것은 공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서적을 출판하다보니, 수학이 공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수학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다양한 책들을 기획해 출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문사라는 출판

사명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 현재는 1010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서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오랜 기간 수학 출판을 해오셨는데, 수학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 수학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게 해주는 통찰력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지 않고, 계산을 배워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빨리 바른 답을 내놓을까. 그러나 수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세상에서 수를 봅니다. 그것은 완결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 때문인지 수학자들은 언제나 순수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량 회수, 폐기하는 것은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대학가에서 경문사라고 하면 교수와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줄 수 있었다고.

이밖에도 번역자가 없어서 번역되지 못하는 문제도 많다. 어떤 책은 어렵게 외국에서 판권을 사왔지만, 마땅한 번역자를 찾지 못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수학책의 번역은 저자 수준의 수학자가 해야만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번역도 어떤 면에서는 제2의 저술과 다를 게 없다. 경문사는 수학서적 출판을 하면서 출판의 정석을 스스로 배워 알고 있는 것도 같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회사

“모두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경문사 박 사장은 직원들을 이렇게 소개한다. 전공서적을 출판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면 결국 출판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출판하는 책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를 위해서 자기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다시 출판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 박 사장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하나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장기 근무자가 많은 것입니다” 경문사에는 이상할 정도로 장기근무자가 많다. 요즘 일이년 일하고 떠나버리는 직장풍토와 비교해 봤을 때 놀랄만한 사실이다. 이렇게 머리 아픈 곳에 있다보면 어딘가로 떠날 것을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했고, 그렇다고 복리후생이 대기업수준인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그냥 즐겁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수학을 가까이하면서 순수해진 것 같다고. 수학에는 그정도의 마력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며 나가면 언젠가는 바닥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일면 자기 발전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심하면 자신을 쪼먹는 일일 수도 있다. 수학은 모든 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1과 100은 결국 같은 가치의 숫자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철학적인 의미와도 상통한다. 수학이 좋다고 말하는 그들의 환한 웃음에는 벌써 수학을 통해 철학의 세계까지 도달한 사람의 여유가 있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